

# 조선에 복음전파를 최초로 시도한 예수회 수사 ‘빈센트 카운’의 진짜 이름은 누구일까?



권영완 (추밀공파 36세,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1867년 7월 7일 교황 비오 9세께서 복자로 선포한 일본의 순교자 205명 중에 열 명의 조선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열 명은 임진왜란 때 왜군에게 불잡혀간 수많은 조선인 포로 중에 일본에서 천주교 신자가 되어 배교하지 않고 순교한 사람들이다. 그 열 명 중 조선에 복음전파를 최초로 시도하고 포로로 일본으로 끌려온 조선인의 신앙의 중심 역할을 한 인물, 빈센트 카운이 포함되어 있다. 빈센트 카운은 12~13살이던 1592년 한성에서 천주교 신자였던 고니시 유키나카 장군 부대에 불잡혀 대마도 주의 부인이었던 그의 딸 마리아에게 보내졌다. 이후 웅천 왜성에 있던 고니시 부대의 천주교 신자 왜군들에게 고니시의 요청으로 1593년 말 조선에 들어온 세스페데스 신부가 토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 금지된 선교활동이 발각되어 1594년 일본으로 돌아가던 중 대마도를 거쳐 가면서 대마도에 있던 조선인 소년 빈센트 카운을 만나 일본 나가사키로 데려가게 된다. 이때부터 이 조선 소년은 빈센트 카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영특했던 소년 빈센트 카운은 나가사키 대교 영 일대를 중심으로 일대 선교

- 정3품 : 당상관 : 절충장군 折衝將軍
  - 정3품 : 당하관 : 어모장군 禦侮將軍
  - 종3품 : 당상관 : 건곤장군 建功將軍
  - 종3품 : 당하관 : 보공장군 保功將軍
  - 정4품 : 당상관 : 진위장군 振威將軍
  - 정4품 : 당하관 : 소위장군 昭威將軍
  - 종4품 : 당상관 : 정략장군 定略將軍
  - 종4품 : 당하관 : 선략장군 宣略將軍

는 구심점이자, 희망이었다. 1571년부터 조선 선교를 시도하던 예수회에서는 중국과 일본에 이어 조선 선교를 성공시키기 위해 신부 한명과 빈센트 카운을 조선에 보내기로 결정한다. 바닷길로는 조선 입국이 어려워 중국 북경에 머물면서 6년간 조선 입국을 시도했지만 요동지역에서 명나라와 청나라의 전쟁으로 인해 조선입국이 어려웠다. 빈센트 카운은 비록 꿈에 그리던 조국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조선인으로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조선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시도한 역사상 최초의 인물이다. 그가 만약 조선입국에 성공하고 조선 선교를 시작했다면 조선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1620년 조선 선교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일본으로 다시 돌아간 빈센트 카운은 시마바라 반도에 숨어서 졸라(Zola) 신부와 함께 일본인과 임진왜란으로 억울하게 잡혀온 수많은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열렬한 증거의 삶을 살았다. 조선 사람들에 대한 그의 감화력은 놀라웠으며 동포들은 그의 모범과 격려에 크나큰 위안을 얻었다. 그러나 1625년 빈센트 카운은 신부들과 함께 체포되어 특히, 천주교 신자들을 괴롭히기로 유명한 시마바라의 감옥에 수감된다. 1년 가까운 수감생활 끝에 빈센트 카운이 기적적으로 남긴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써있다고 한다.

“저는 조선에서 태어나 1592년 일본으로 왔으며, 같은 해 12월 교회에 들어가 주님의 은총으로 33년을 지냈습니다.”

막부는 그의 높은 학문과 인덕을 아껴 신앙을 포기할 것을 회유했지만 그는 끝내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감옥의 옥졸들이 빈센트 카운과 동료 신부들에게 감화되어 유순한 사람으로 변하고 천주교 신앙까지 갖게 되는 일이 생기자 더욱 가혹하게 다루며 달콤한 유혹과 회유를 계속했다. 결국 막부는 모진 고문과 회유에도 그의 신앙을 꺾을 수 없자 화형을 결정했고 1626년 6월 20일 졸라 신부, 토래 신부, 파체코 신부 등과 함께 빈센트 카운은 나가사카

니시자와 언덕에서 화형을 당하게 된다. 화형이 집행되기 며칠 전 감옥에서 예수회 일본 관구장이었던 파체코 신부에게 빙센트 카운은 완전한 수도자의 허원식을 받아 수사로 임명되었고 이제 빙센트 카운은 정식 수사로서 순교자가 되었다. 조선인 천주교 신자 빙센트 카운은 화염 속에서 찬미가를 부르며 기꺼이 죽음을 맞이한다. 그는 편지에서 배교를 가으다하여 해해지 오가 고무들을 기록해놓아

“저의 영혼과 육체를 모두 성부와 성자와 성신께 바쳤습니다. 제가 고통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저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배운 사랑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빈세트 카운에 대한 1999년 5월 경향잡지에 실린  
대구 가톨릭대 김길수 교수님의 글과 2012년 3월 8  
일 KBS 역사 스페셜 방송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빈세트 카운이 인생을 다시 정기해보니

조국 조선에 복음 전파를 시도했던 최초의 한국인이며, 예수회 수사인 빈센트 카운, 1627년 페드로 모레혼 신부가 일본에서 교황청에 보낸 편지에 빈센트 카운의 이름이 등장하고 3000 기병을 거느린 조선장군의 아들이라고 적혀있다. 조선인 최초로 코레지오 신학교에서 신학교육을 받고 조국 조선 전도를 시도했으며 일본에서 포로로 잡혀온 조선인들의 신앙의 구심적 역할을 하며 천주교 신앙을 전파하다 모진 고문과 회유에도 굴복하지 않고 1626년 예수회 수사로 순교하시고 1867년 준성인에 해당하는 복자가 되신 빈센트 카운의 진짜 이름은 누구일까?

보에는 형제들의 과거기록의 여섯 아들과 달리 일곱으로 기록되어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번에도 앞의 두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섯째의 이름만 달랐다. 족보에는 다섯째의 이름이 탁(達)이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섯째의 이름이 세 형제의 방목기록과 족보에 수(遂), 칙(邀), 탁(達) 이렇게 다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다섯째에 대한 이름을 제외하고는 과거기록과 족보의 경우 모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의 이름이 같으니 분명한 한 가족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족보에는 일곱째의 이름이 기록되어있었다. 일곱째 아들의 이름은 운(運)이었다.

衛), 양인출신 병사들로 기병과 보병으로 나뉘었으며 한양과 궁궐의 수비를 맡은 정병(正兵), 천민들로 구성된 장용위(壯勇衛)가 있었다. 충무위는 서울(京) 북부와 함경도의 북청 진관을 중부(中部), 갑산 삼수, 혜산을 좌부(左部), 온성, 경원, 경흥, 유원, 미전, 훈융을 우부(右部), 경성, 부령, 회령, 종성, 고령 동관을 전부(前部), 영흥과 안변을 후부(後部)로 두었다. 서울북부와 함경도를 관할지역으로 하였다. 서울북부 지역과 함경도를 위수지역으로 하는 충무위의 정략장군 충무위부사과의 직위였다면 그 아래에 3000 기병대가 있다는 것은 큰 무리가 없는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그럼, 권운의 아버지 권인은 어

주시 진건읍 용정리 산44번지에 자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3세 권운의 셋째 형인 권술의 후손 중에 독립운동 공훈으로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은 여성 독립운동가 추밀공과 34세 권애라가 있다. 권애라는 개성의 3.1운동의 첫 시위를 주도하여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고 출소 후 상하이, 모스크바서 독립운동을 펼치다 붙잡혀 중국의 장춘형무소에서 감옥생활을 하다 해방을 맞아 석방되었다. 광복 후 좌우합작위원회 위원을 지내기도 했으며 1967년 3.1여성동지회 결성에 참여하고 1973년 서울에서 타계하신 대표적인 여성 독립운동가로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둔려계신 권문의 자랑스러운 인물이다.

참고문헌

1. 권팔의 방목기록(선조 12년(1579년) 4월 2일, 식년시): 조선시대 생진시방목(朝鮮時代生進試榜目) 3책, “만력7년기묘4월초2일사마방목(萬曆七年己卯四月初二日司馬榜目)” (구장각한국학연구원 [古 4650-108])

父長少副尉	永感下	仁武
幼學任慶基 <small>總裁 庚辰歲</small>	鴈行第	譯
父道訓大夫前永平縣令元	本豐川	
嚴侍下		
父定職軍忠武衛副司裏認		
具慶下	本安東	
幼學安添吉 <small>善祐 丙辰歲</small>		
本竹山		
居京	居京	
父承議郎前行司饔院奉事夢得		
幼學		
居京		

2. 권술의 방목기록(선조 17년(1584년) 8월 17일, 별시): “만력12년갑신추별시문무방목(萬曆十二年甲申秋別試文武榜目)”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고) 349.16 문무만])

3. 권일의 방목기록(선조 22년(1589년) 3월 17일, 증광시): “만력17년기축3월17일종계증광사마방목(萬曆十七年己丑三月十七日宗系增廣司馬榜目)”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貴B13KB-0048])

幼學推	公	具慶下	鴈行	本慶臣
父宣教	鈞	慈侍下	鴈行	本慶東
父定略	子	父定略	子	居京
父通訓	大行	父定略	忠武衛副司果	認
父永感	子	父通訓	義盈庫主簿	達
父學推	子	父永感	下鴈行	達
父宣教	鈞	本慶臣	本慶東	居京
父定略	子	居白川	居白川	居白川
父通訓	大行	義盈庫主簿	壽永	壽永
父永感	子	下鴈行	達	達
父學推	子	本慶東	居同	居同
父宣教	鈞	居同	居同	居同

4. 족보: 안동권씨 한글판전산대동세보 2015,  
1-1권 284 ~ 286쪽



5. 권팽년 방목기록(중종 8년(1513년) 9월 11일 식년시):  
“정덕8년 계유 9월 일방목(正德八年癸酉九月日榜目)』(문무잡지) 111면

（1）평년 방목기록(중종 8  
3년) 9월 11일 식년시):  
년계유9월일방목(正德  
酉九月日榜目) (문무잡  
(文武雜科榜目) [보물 제  
)